

사설

# 무너진 연대를 다시 세우려면

5회차에 걸친 '청년극우 연속 기획'을 마무리한다. 1회차 「'뭉' 처럼 소비되는 혐오, 내 안의 극우를 깨우다」를 발행했을 때 독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특히 우리신문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다.

각오하고 시작한 연속기획이지만 예상했던 것 이상의 반응이었다. 우리신문에서 했던 설문조사에서 '극우' 또는 '극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특정 정당·정치 세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만큼,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기획 의도는 그와는 다른 방향이었다. 정치적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타자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배척을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정서에 대해 취재하고 싶었다.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수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우리가 예전만큼 대화하고 토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감한 사회 문제에 대해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는 '예'보다 '아니오'에 가깝다.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그 대화가 대인관계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생긴다. 이러한 사회적 양상이 이어지면서 상대의 생각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밝히는 것도 꺼리는 사회가 됐다.

우리신문 설문조사 응답자의 65.3%는 일상 언어와 온라인 문화, 청년 세대의 정서 속에서 혐오와 차별적 언어 사용이 가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에 동의했다. 극단적인 정서로부터 나오는 혐오 표현은 점점 정도가 심해져 서로

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혐오 표현을 들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피로감이 쌓인다.

일상에서 범위를 넓혀보면, 배척하는 태도와 타자 혐오의 정도가 심각해질수록 민주주의는 불안해진다.

극우 정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합의에 균열을 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린다.

합의 없는 정치권력이 탄생할 수 있고, 그에 저항하려고 해도 손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 일상에선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얼마든지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진짜 큰일이 나기 전에,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당장 대학생들에게 어제와 다르게 오늘부터 활발하게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연대 의식을 마음속에 지니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학을 포함한 교육계부터라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절실하다.

3개월 간 취재하며 우리는 대화와 토론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연대의 상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혐오가 확산되고 타자를 적으로 보게 된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쉽지 않았지만 존중을 전제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듣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타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와 '우리'를 위해, 이제라도 대화하고 뭉쳐야 한다.

세시봉

# 일상으로의 유배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얼마 전 영화관을 찾았다가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상영관이 빈자리 없이 관람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영화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이 작품은 누적 관객 1200만 명을 돌파하며 기록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문득 사람들이 왜 이토록 왕사남에 열광하는지 궁금해졌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 6대 왕 단종이 폐위된 뒤 영월로 유배돼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시간을 담담히 따라간다.

극의 흐름은 잔잔하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일상적인 장면들이 주를 이루며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전투 장면이나 권력자의 화려한 모습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결말 또한 자극적인 반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비슷하게 전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영화에 몰입해 다른 관람객들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잠시 잊고 있었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빠르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다. 숏폼 콘텐츠와 OTT 플랫폼의 대량 소비가 그 방증이다. 도파민 추구 시대에서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반대일지도 모른다. 쉽없이 쏟아지는 자극은 사람을 쉽게 흥분시키지만 순간적이다. 우리는 순간에 속아 일상 속의 정서를 잊고 있던 것이다.

어쩌면 관람객들은 사회 갈등에 지쳐 평범한 삶을 원했던 어린 소년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평범한 삶 속 여유가 주는 위로가 필요할 때다.

"나오리..왜 그러셨습니까..왜 혼자 짊어지셨습니까" 극 중 단종을 보필한 엄홍도의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고자 한 이 대목은 눈물샘을 자극했다. 평범한 삶은 결코 하찮지 않다. 자극적인 요소가 흥행할수록 평범한 삶에 대한 의미는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평범한 일상이다. 잠시 바쁜 일은 제쳐두고 주변 사람과 일상을 돌아보는 마음의 유배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문지마 투자의 위험성

# 신중해야 할 투자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마이너스 100만원. 누군가에게 작은 금액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생인 나에게는 난생 처음 겪는 큰 손실이었다.

작년 5월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나는 "곧 주가가 떨어진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증권사 거래량 1위였던 테슬라 인버스 ETF를 매수했다. 기대와 달리 내가 마주한 것은 가파르게 떨어지는 파란색 차트였다. 이후 나는 한동안 주식 창을 열어보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야말로 주식 열풍이다.

전문가들은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현 상황을 '포모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설명한다. 별도의 노동 없이

주식 투자로 남들이 큰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청년들을 주식 시장으로 떠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원의 김민기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과잉 확신이나 포모(FOMO) 심리 같은 행태적 편향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위기에 휩쓸려 시장에 진입하는 행동을 꼬집은 것이다.

최근 주식 시장은 분 단위로 요동친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만 280 포인트(약 5.3%) 이상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경제 상황과 시장에 대한 분석 없이 높은 수익을 얻는 요행을 바라는 태도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구조에 있다. 투자는 공부와 분석 위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를 가진다. 그저 흐름만을 좇는 문지마 매수는 투자 초보에 가까운 학생일수록 문지마 투자의 유혹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평 포모에 밀려 뛰어내린 낭떠러지 끝에서 투자는 철저한 분석이 필수임을 100만 원의 대가로 깨닫는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